



高雄市中에서 전염병 연구소
 俊雄씨와 함께 기념촬영. 기생충 검사실장 周

台灣 南投지구 기생충관리 시범사업을 돌아 보고

● 서 병 설

남투(난투우)는 대만중심에 위치하는 인구 약 52만, 9 만세대의 한 현으로 대중과 인접하고 있다.

이 지역은 1959년 이래 대만가족 계획사업의 시범지구로 그 성과는 전세계에 잘 알려져 있는곳이기도 하다.

기생충 특히 회충감염은 1970년

일부 국민학교 아동검사에 따르면 43%이었으나 1971년 6월부터 남투 지구를 A.B.C. 3개지역으로 나누어 일본 O.T.C.A.로부터 구충제 (Santonin-Kainic산복합제)를 무상 원조 받아 전원투약방식에 의하여 A.B.C 각지구에서 각각 16회, 11회, 및 8회 집단치료를 시행하였

원바 3개 지역에서 1974년 조사에 의하면 A지구에서는 41.6%에서 15.7%, B지구에서는 24.4%에서 4.4%, C지구에서는 36.9%에서 15.6%로 각각 뚜렷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한다. 감염율의 저하뿐 아니라 감염강도에 있어서도 현저한 감소를 볼 수 있었다 한다. 즉 A지구에서는 집단치료전 평균 E.P.G는 31,465에서 5,440으로, B지구에서는 24,213에서 6,995로, C지구에서는 23,250에서 4,076으로 각각 떨어졌다.

1971년에서 1974년까지의 남투지구 회충 집단관리 사업은 일단 성공적으로 종료 하였으나 1975년부터는 이 지구의 가족계획사업과 공동사업을 전개하기로 하고 상호간

의 긴밀한 협력으로 가족계획사업 추진을 꾀할 뿐더러 이제까지의 회충관리사업에도 더욱 큰 박차를 가하고자 일석이조의 시범사업을 새로이 전개하였던 것이다.

가족계획 및 기생충관리 공동사업 : 제 1차 아시아 기생충관리지구 회의(1974년 동경)에서 일본기생충 예방회 상임이사 國井씨는 지역사회에서 가족계획 실천율을 높이는 것은 모자의 보건은 향상시키고 나아가서는 가족전체에 이익이 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기본개념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특히 기생충관리사업과 동시에 추진시켰을 경우 뚜렷한 즉시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기생충관리사업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 비교적 용이하게



南投市 보건소에서
귀씨와 현안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천·치우

가정에 파고 들어 갈수 있다는 장점과 가족계획 사업요원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인력의 절약을 기할수 없어 크게 경제적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 공동사업안은 즉시 대만남투를 선택하여 1975년부터 실험적 시범사업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사실상 남투지역은 가족계획실천율이 거의 포화상태에 있어 60%이상으로 더욱 높이는 상당히 곤란한 경우에 있었다.

1975년 7월에서 1977년 6월까지 3년 계획으로 일본의 원조를 받아 45세이하의 가입연령의 기혼 부인 80,000명과 5세이하 소아 64,000명이 초년도의 목표로 보건소가 중심이되어 전적으로 정부의 행정력만으로 사업이 전개되어 금년으로 만 1년이 되었다.

제 1차 년도의 평가검 시찰을 위촉받고 7월 3일에서 10일간 남투 지구 및 기타도시를 순회하고 공동사업의 실제의의를 현지에서 찾아볼 기회가 있어 우리나라에서의 앞으로의 화성군계획을 생각하며 몇 가지 느낀점을 요약할까 한다.

남투지구는 십수년전부터 가족계획사업이 조직적으로 수행되고 있었던 곳이라 실제로 합동계획이 시작된 1974년에 44세이하의 약 16% 인구만이 대상이 되고 있다. 즉 실

천율이 60%이상인다고 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출산력을 더 떨어 뜨리기는 용이한 일이 아니다.

가족계획연구소(대중시소재) 통계에 따르면 30세이상 부인에서 투프사용자를 1.0단위로, 30세미만에서는 1.2단위로, 먹는피임약(10회) 또는 콘돔(6타)분 수령자를 1.0단위로 정하고 1975년 7월부터 1976년 2월까지 실천자의 총단위수를 계산하였던바 10,438단위였고 이것은 공동사업이 시작된 이후 24.4%의 증가를 보인것이라 하고 있다. 이것은 대만기타 지역에 비교하면 5.3% 남투실험지역이 더 높았다고 한다.

한편 1975년말까지 계획된 방문세대수는 61,489였으며 이 중에서 49,998세대(81.3%)를 방문할수 있었으며 20세에서 44세까지의 부인 31,148명을 직접접촉하여 공동사업의 의의를 설명할수 있었으며 이 중에서 62.3%가 가족계획을 실천하고 있었다 한다.

가족계획요원들은 단기간 훈련을 받은 후 기생충 검변표본을 동시에 방문가정에서 수집하는 것이다. 요원한명이 매일 15~20세대를 방문하면 월 약 300호와 접촉이 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요원한명에 한대씩 [싸이트·카]가 공급되어 방문세대수를 증가시킬수 있었다 한다.

더욱이 표본한건 수집에 약 10월 정도의 수당을 받고 있어 표본수집율은 극히 좋은 편이었다. 집편은 대북시에 전염병연구소 기생충부에서하고 양성자에게는 즉시 보건소를 통하여 요원이 투약하고 4주후 다시 체변하여 후검변으로 음전을 확인하고 있다. 투약은 1974년까지는 산토닌-카이닌산 복합제를 사용 하였으나 공동사업때에는 전부 피랄페 진량투여를 하고 있어 음전율은 90%이상이라고 한다.

남투시에서는 가족계획요원 2명 기타 보건요원을 합하여 전부 7명

이 이사업을 담당하고 있었으며「맹천」시에서는 전부 4명이 이사업을 일선에서 전담하고 있다. 남투시및 「맹천」시 보건소장들은 다같이 이사업의 전망이 밝다고 하고 있었다. 다만 이 계획이 원조없이 어느정도 가능한지는 알 도리가 없다.

앞으로 계획된 우리나라 화성군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대만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한점이 많은 것 같다. 대만은 전적으로 보건소조직을 이용한 정부사업의 일환으로 취급되고 있으나 우리는 衛協과 가협이 공동으로 민간 Base로 수행되어야 하며 남투 경우와는 달리 보건요원의 사전훈련(특히 기생충 병에 대한), 기동성 부여등은 검변재료 수집과 크게 관계되는 것이 아닐수 없고 후검변의 정확성, 투약상의 많은 문제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상 가족계획사업과 기생충관리사업이 상호 연관성을 효율면에서 과학적으로 정확히 평가하기는 너무나도 많은 난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계획이 두사업에서 다 같이 크게 성과를 거두기를 기원해마지 않는다.

<필자=서울의대기생충학교수·기혈 부회장>

토막상식 ●

強精劑는 心理的 效果일뿐

우리의 주변에는 전시황처럼 허망한 욕심을 가지고 정력회복에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강정제(強精劑)는 1백50여종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것들은 거의 심리적 효과일뿐 이렇다할 효험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를테면 요즘을 말하는 「플라시브」, 즉 위약(偽藥)의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